

계량정보학적 분석을 통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최근 연구동향 분석*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정보관리학회지와 비교하여 -

Informetric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The Journal of Korean Biblio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서은경 (Eun-Gyoung Seo)** , 이원경 (Won-Kyung Lee)***

박은경 (Eun-Kyung Park)**** , 이옥성 (Ock-Seong Lee)*****

초 록

본 연구는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발표된 논문들의 계량서지적 특징과 연구패턴, 연구영역을 규명하고 문헌정보학분야의 또 다른 학술지인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의 논문들과 비교함으로써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학술적 특징과 최근 동향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2010에서 2014년까지 5년간 발행된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300편,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344편 그리고 『정보관리학회지』의 283편, 총 927편을 대상으로 계량서지학적 분석,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 분석, 저자키워드 분석, 그리고 지적구조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계량서지학적 분석에서는 『한국비블리아학회지』와 다른 학회지와 별 다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른 학회지와는 다르게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주제는 정보서비스였고 그 다음은 도서관경영과 독서교육이었으며 서베이 방법과 사례연구를 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적구조 분석을 통하여 ‘공공도서관과 독서 영역’, ‘대학도서관과 장서관리 영역’, ‘학교도서관과 정보활용 영역’이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최근 핵심연구 영역임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s articles in published in the *The Journal of Korean Biblio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KBSLIS)* over 5 years from 2010 to 2014 for identifying the academic characteristics and the recent research trends of the *JKBSLIS*. 300 articles of *JKBSLIS* are analyzed in terms of bibliometric factors, research theme, methodology, author keywords, and intellectual structure comparing with 344 articles of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KSLIS)* and 283 articles of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JKOSIM)*. In results, there is no differences between *JKBSLIS* and the other two journals, *JKSLIS* and *JKOSIM* regards on bibliometric factors. The domain research areas in the *JKBSLIS* are 'Information Services', 'Library Management' and 'Reading Education'. It is also found that the most popular methods are 'survey' and 'case study' and that the main research areas in the shown intellectual structure are 'public library & reading', 'academic library & collection management', and 'school library &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키워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계량정보학적 분석, 내용분석, 연구주제, 연구방법, 지적구조
The Korean Biblio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trends, content analysis, research subject, research methods, intellectual structure, informetric analysis

*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egseo@hansung.ac.kr) (제1저자)

***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lwk-78@hanmail.net) (공동저자)

****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lovepark@korea.kr) (공동저자)

*****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parani1123@hanmail.net)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5년 8월 26일 논문심사일자 : 2015년 9월 14일 게재확정일자 : 2015년 9월 14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3): 315-343, 201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5.26.3.315>)

1. 서론

1.1 연구 목적

학술지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그 학술지가 표명하는 주제 분야의 영역 및 학술적 패턴은 물론이고 그 주제 분야의 최근 이슈, 이슈 변화, 새로운 학문적 요구 사항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탐구 주제와 방법이 어떠한 경향을 띠면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게 하여 그 분야의 지식기반 구축을 공고히 하게 해주며, 더 나아가 해당 영역 혹은 분야의 현실적인 요구에 대응하도록 연구의 방향을 조정하거나 새롭게 설정하는데 도움을 준다(신현석 외 2013). 특히 응용학문인 경우에는, 학문 탐구의 과정으로서의 연구가 실제와 이론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학술연구가 현실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동향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술지의 연구논문 동향분석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시각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발표된 연구논문의 내용을 리뷰 형태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식은 계량정보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생산성, 연구패턴, 연구영역 등을 도출하여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계량정보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학술지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정보학분야의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중 하나인 『한국비블리아학회지』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단일 학술지를 선정하여 그 학술지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특정 학문분야의 연구영역 및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종래 연구와는

차별되며 그 연구영역의 총체적인 연구동향을 모색할 수는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그러나 단일 학술지의 집중 분석은 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가 표방하는 경향을 밝히고 이러한 특징이 그 학문분야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지식축적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분석대상의 학술지가 그 분야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요구와 흐름을 어떻게 반영하고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며 더 나아가서 다른 학술지와의 차별성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단일 학술지를 선정하여 그 학술지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문헌정보학분야의 논문으로는 『정보관리학회지』를 분석한 서은경(2010)의 연구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를 대상으로 한 강미희와 김정현(2014)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또 하나의 문헌정보학분야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한국비블리아학회지』만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한 논문은 없었다.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1972년 출판된 『한국비블리아』를 모태로 하여 2005년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선정과 동시에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되었고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상시로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국비블리아학회가 출판하는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잡지이다.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도서관관련 정책 및 현안, 이슈와 쟁점, 새로운 추세 및 현상과 관련한 이론과 실재를 탐색하고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적 비전을 제시하는 학술지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대한 계량정보학적 분석은 학술지가 표방하는 연구영역과 주제의 연구동향 파악을 가능하게 하면서 다른 학술지와의 차별성

을 파악하게 해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발표한 논문들의 계량서지적 특징과 연구패턴, 연구영역을 규명함으로써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학술적 특징을 찾아보고 현재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의 최근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창간한지 가장 오래되고 문헌정보학 전반에 걸친 주제를 포괄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등재학술지인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문헌정보학의 또 하나의 핵심 영역인 정보학을 주제영역으로 표명한 등재학술지인 「정보관리학회지」를 선정하여 이 두 개의 학술지와 「한국비블리아학회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로써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연구의 특징 및 다른 학술지와와의 차별성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동향을 알려주는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잡지인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이하 「비블리아」)의 계량서지학적 특징과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량정보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비블리아」의 최근 연구동향을 다른 학술지와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파악하고자 같은 주제를 표명하고 있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이하 「문헌정보」)와 문헌정보학분야의 세부주제인 정보학분야의 학술지인 「정보관리학회지」(이하 「정보관리」)를 선정하여 출판행태, 연구영역, 방법론, 관심사 등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계량정보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최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5년 동안 즉 2010년부터 2014년 동안에 「비블리아」, 「문헌정보」, 「정보관리」에 발표된 논문 총 927편을 수집한 후, 각 논문의 제목, 저자명 및 저자소속, 초록, 주제어(영문과 국문), 인용문헌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였다.

둘째, 각 학술지 논문에 대하여 생산분포, 저자분포, 소속분포, 주제어분포, 인용문헌 형태별 분포, 인용빈도 및 인용반감기, 그리고 상위 인용학술지를 파악하는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수행하여 「비블리아」의 학술적 특징을 「문헌정보」와 「정보관리」의 특징과 비교하였다.

셋째, 「비블리아」에 발표된 논문의 주제영역과 연구방법론의 분포를 「문헌정보」와 「정보관리」의 분포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헌정보학 분야의 주제 영역의 범주는 15개 영역으로 '이론', '장서관리', '정보조직', '정보서비스', '운영 및 평가', '독서교육', '정보정책 및 이슈', '메타데이터', '정보이용 및 행태', '정보처리 및 검색', '정보시스템', '시스템평가', '계량정보학', '서지학', '기록관리학'이다. 또한 연구방법의 범주로 '개념적 고찰', '이론적 모형', '실험적 방법', '서베이 방법', '평가 방법', '계량정보학', '질적 방법', '사례 연구', '서지학적 연구', '리뷰 연구'이다.

넷째, 「비블리아」 연구논문의 주제영역과 그 구조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적구조와 세 학술지 통합 지적구조를 도출하여 서로 비교분석하였다. 지적구조를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COOC

ver 0.3.1 프로그램의 동시출현단어분석(co-word analysis) 기능을 실행하여 동시출현빈도 행렬과 코사인 유사도 행렬을 산출하였고, 산출된 결과를 WNET ver 0.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패스파인더 네트워크(PFNet), 병렬 최근접 이웃 클러스터링(PNNC), 가중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WCNET) 등을 산출하였으며, 그 값을 NodeXL로 시각화하였다.

2. 선행연구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동안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은 연구자의 특성 및 학문적 정체성을 파악하여 성과와 발전을 검증하고 미래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80년대에 이르러 계량정보학 분석방법이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동향 연구에 시도되면서 본격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고 최근에 들어서는 분석대상의 규모가 방대해졌고 계량서지학적 방법론 이외에 지적구조와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적용한 연구들이 많아졌다. 본 연구는 최근 10년 동안 수행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오세훈(2005)은 1946년부터 2004년까지 발표된 학술지 논문의 생산성과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이전에는 도서관 체제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면, 그 이후에는 도서관 운영과 자료 조직, 정보학, 참고정보봉사 등 다양한 영역으로 연구 주제가 확대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1991년~2004년까지 14년 동안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들의 논문 생산성(55.7%)이 1946년~1990년 사이의 논문 생산성(44.3%)을

능가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석박사 학위논문을 분석한 송정숙(2010) 역시 2000년 이전에 비해 2001년~2010년의 논문 발표량이 4배 정도 증가하였고, 연구영역으로 정보서비스(33%)와 정보학(22%)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의 학술지 논문을 분석한 이종욱과 양기덕(2011) 역시 논문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2007년을 제외하고 대체로 연구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하였다. 또한 교수 1인당 연평균 1.51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공동연구(47.25%)보다 단독연구(52.75%)를 더 많이 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17년간의 학술지 논문을 분석한 이석형과 류범중(2013)은 연도별 논문 발표량이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2004년~2013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수가 과거 10년에 비해 2.57배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기관 생산성은 교수·대학원생이 소속된 대학교가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 분야에 비해 공동연구 비율이 낮고, 교수-교수간의 공저 비율은 가장 높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조인숙과 한미숙(2007)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10년 동안 발표된 문헌정보학 분야 대표 학술지 논문의 인용문헌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논문당 평균적으로 27.1건의 문헌을 인용하고 있으며, 국내 학술지로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24.6%)를 그리고 국외 학술지로는 JASIST(10.4%)를 가장 많이 인용하였고, 국내 인용논문의 수명은 대체적으로 4~7년이고 국외 인용논문의 수명은 8~11년으로 국내학술지의 수명이 더 짧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으로 동시출현단어분석, 저자서지결합분석, 토픽모델링 실험 등을 토대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지적구조 및 연구동향을 파

악하는 논문들이 최근 들어 활발히 발표되고 있다. 이수상(2011)은 지난 10년간의 학술지 논문을 분석한 결과 공저빈도의 변화에 따라 네트워크의 구조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공저빈도 5회 이상인 결속연구집단이 전체 21개의 공저자 쌍을 형성하고 있지만 공저의 주제적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조재인(2011)은 최근 7년간(2005-2011) 문헌정보학 분야의 논문에서 추출한 색인어를 분석하였는데,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의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가, 이용자, 웹, 검색, 분류’ 등의 주제어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평가, 교육’ 관련 주제의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도서관 운영 평가와 이용자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Milojević와 Sugimoto(2011)는 1998~2007년에 발표된 문헌정보학 분야의 16개 학술지 논문 제목에서 추출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3개의 영역(도서관학, 정보학, 계량정보학)으로 나뉘었으며 추가적으로 2개의 하위영역(정보추구행위, 서지기술)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인지적 개념들이 1998년~2001년 사이에 빠르게 변화하였다고 보았다. 박자현과 송민(2013)은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주요 학술지에 1970년부터 2012년도까지 발표한 논문의 초록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한 토픽 모델링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정보학, 도서관서비스’ 분야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도서관 유형별 서비스 및 평가, 인터넷, 메타데이터’는 점차 증가하고 ‘도서, 분류, 편목, 고서지’에 관한 연구는 점차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같은 연도에 박지연과 정동열(2013)은 1991년에서 2010년간의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1990년에는 13개 군집이 형성된 반면에 2000년대에는 16개의 군집이 형성되었고, 핵심주제영역이 1990년대에는 ‘분류, 목록, 정보검색, 디지털도서관’에서 2000년에는 ‘도서관 경영 및 정책, 정보서비스’로 변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서은경과 유소영(2013)은 국내 정보학 연구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11년 까지 연구재단에 등재된 문헌정보학 관련 학회지에서 정보학 분야 논문 1,00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주요 키워드의 변화 및 지적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난 12년간 한국의 정보학 연구는 정보시스템 중심적 연구에서 이를 도서관에 적용하는 도서관 응용적 연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지식관리, 웹기반 시스템 평가, 정보검색 분야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김하진과 송민(2014)은 국내의 정보학 분야 학회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정보관리학회지』와 국외 JASIST의 논문 제목과 초록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한 명사, 명사구 동시출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국내인 경우, 도서관, 정보서비스, 정보이용자, 웹관련 정보학, 정보자료 조직에 대한 주제가 많았고 국외 JASIST는 정보검색, 정보이용자, 웹관련 정보학, 계량정보학 연구가 많았음을 밝혔다. 김수연, 송성전과 송민(2015)은 역시 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DBLP(Digital Bibliography & Library Project)의 학술회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관련 연구는 성장패턴을 보

였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마이닝은 쇠퇴패턴, 그리고 웹 텍스트마이닝, 정보검색, 데이터베이스는 지속패턴임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는 문헌정보학 분야 전체가 아닌 세부 주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동향 및 지적구조 연구가 많아졌다. 즉 유사라(2010)는 '메타데이터' 주제의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밝혔고, 김정현(2011)은 자료조직 분야의 연구에 대하여 내용분석을 수행한 반면 박옥남(2011)은 '정보조직' 분야의 연구의 지적구조를 규명하였다. 또한 '대학도서관' 연구분야 및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상희(2011)는 2005년부터 2009년 동안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139건의 논문을 대상으로 용어클러스터링과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해영(2015)은 대학도서관 관련 1,023건의 논문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박명규와 김희정(2011)은 '정보활용능력'과 관련된 연구의 세부 주제영역을 분석하고자 계량분석을 수행하였고, 장윤미와 정연경(2013)은 '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의 하위 주제, 연구방법,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조사하였다. 최근 이용재와 김경덕(2014)은 '도서관경영', 김관준(2015)은 '디지털큐레이션', 김미설과 장우권(2015)은 '도서관마케팅 프로모션'에 관한 연구동향을 연구하였다.

한편, 단일 학술지를 대상으로 계량정보학적 분석을 한 논문으로는 서은경(2010), 김미희와 김정현(2014)과 Luo and McKinney(2015) 연구가 있다. 서은경은 1984-2009년까지 「정보관리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분석하여 정보학 분야에서 '정보서비스, 정보조직, 정보시스템 응용'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정보시스템, 정보조직' 등에 대한 연구가 감소 추세에 있

으며, '정보자원관리, 정보설계 및 평가, 정보서비스' 등을 주제로 한 연구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지적 구조 분석을 통해 '정보검색과 정보 이용'이 정보학 연구의 핵심 영역이며, 최근에는 인터넷 기반 정보기술과 정보서비스 및 평가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강미희와 김정현은 1974년에서 2013년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주요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주제는 문헌정보학일반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료조직, 정보서비스, 정보학, 독서지도, 도서관경영, 서지학, 장서개발, 기록관리학 순이었다. 또한 공동연구의 경향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연구자의 소속지역 분석을 통해 전국규모 학회지로 성장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Luo and McKinney는 지난 10년간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에 발표된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연구 주제를 24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는데, 그중에서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뤄졌으며, 연구자들은 주로 설문조사 및 문헌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고 밝혔다.

3. 계량서지학적 특징 분석

본 연구는 최근 「비블리아」 논문의 학술적 특징과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0년에서 2014년까지의 5년 동안 「비블리아」에 게재된 논문 300편과, 「문헌정보」에 게재된 논문 344편, 그리고 「정보관리」에 게재된 논문 283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총 927편의 논문으로부터 논문제목, 저자명, 저자소속, 국문 저자키

워드, 영문 저자키워드, 초록, 인용문헌 데이터를 2015년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 동안 수집하여 분석데이터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수집된 논문의 수는 927편이고, 총 저자의 수는 1,548명이고 국문 저자키워드(이하 키워드)의 수는 4,803개이며 인용문헌의 수는 23,708개였다.

3.1 논문 분포

「비블리아」는 최근 5년간 2011년과 2014년에 정년기념호를 발간하였고 2010년부터 2012년에는 2호와 4호에 기획논문들을 실었으며,¹⁾ 총 30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비블리아」는 호당 평균적으로 15편의 논문을 실었고 발표된 각 논문의 저자 수는 1.65명이고 각 논문은 키워드를 평균 5.1개 제시하고 있었으며 평균 25.7개

의 문헌을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1> 참조). 이와 같은 논문의 서지적 특징에 대해 「문헌정보」와 「정보관리」와 비교한 결과 세 학술지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논문당 저자의 수는 「비블리아」와 「문헌정보」가 같았고 호당 논문수는 「문헌정보」가 17.2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관리」는 14.1편으로 가장 적었다. 또한 공동저자 논문비율 면에서는 「비블리아」가 「문헌정보」보다 높고 「정보관리」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체적으로 일반적 특징을 보여주는 수치에서는 「비블리아」는 「문헌정보」와 「정보관리」 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비블리아」에 발표한 논문의 일반적 출판행태의 특징을 연도별로 살펴본 그 결과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비블리아」는 물

<표 1> 세 학술지의 논문수, 저자수, 키워드수, 인용문헌수의 분포

(건수)				
구분	분 류	비블리아	문헌정보	정보관리
논문수	총 논문수	300	344	283
	단일저자 논문수	152	192	133
	공동저자 논문수	148	152	150
	호당 논문수	15	17.2	14.15
저자수	총 저자수	495	569	484
	논문당 저자수	1.65	1.65	1.71
	공동저자 논문 비율	49.3%	44.1%	53.0%
저자키워드수	총 키워드수	1,530	1,765	1,508
	총 고유 키워드수	1,177	1,349	1,157
	논문당 키워드수	5.10	5.88	5.33
인용문헌수	총 인용문헌수	7,723	8,371	7,614
	논문당 인용문헌수	25.74	24.33	26.90

1) 2010년 2호에 '도서관과 지역사회 I' 기획주제 논문 5편과 4호에 '도서관과 지역사회 II' 기획주제 논문 6편이 실렸다. 2011년에는 2호에 '정보관리의 핵심요소: 기술 그리고 사회' 기획주제 논문 3편과 4호에 '정보와 정보활용' 기획논문 4편을 실렸다. 2012년에는 2호에 '학문과 융복합화' 기획논문 3편과 4호에 '정보활용의 극대화' 기획논문 6편이 실렸다.

〈표 2〉 연도별 세 학술지의 논문수, 저자수, 키워드수, 인용문헌수의 분포

(건수)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논문수	비블리아	53.00	68.00	63.00	58.00	58.00
	문헌정보	68.00	71.00	57.00	73.00	75.00
	정보관리	60.00	61.00	57.00	55.00	50.00
호당 논문수	비블리아	13.25	17	15.75	14.5	14.5
	문헌정보	17.00	17.75	14.25	18.25	18.75
	정보관리	15.00	15.25	14.25	13.75	12.5
논문당 저자수	비블리아	1.79	1.47	1.59	1.64	1.81
	문헌정보	1.34	1.68	1.61	1.86	1.75
	정보관리	1.57	1.66	1.63	1.98	1.74
논문당 키워드수	비블리아	5.28	5.60	3.56	5.70	5.41
	문헌정보	4.98	5.13	5.36	5.10	5.10
	정보관리	5.08	5.59	5.79	5.24	4.88
논문당 인용문헌수	비블리아	23.32	26.19	27.14	25.88	25.78
	문헌정보	26.99	21.90	23.16	23.62	25.83
	정보관리	24.85	25.56	27.49	28.93	28.12

론 「문헌정보」와 「정보관리」 모두, 일반적 특징을 나타내는 수치는 매년 다르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아 일정한 수준에서 논문이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만 정년퇴임 기념호와 기획논문이 2호와 4호에 실린 2011년에는 「비블리아」 논문수가 5년 중 가장 많았다.

3.2 저자 분포

공동 연구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단일 저자 및 공저자 분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비블리아」의 단일저자는 152편으로 50.7%인 반면, 「문헌정보」의 단일저자 비율은 55.8%이고 「정보관리」의 단일저자 논문의 비율은 47%로 나타났다. 즉 공동 연구의 경향이 「정보관리」에서 가장 많이 보였고 단독 연구는 「문헌정보」에서 우세하였고 「비블리아」는 그 중간이었다.

그러나 4명 이상의 연구는 「비블리아」인 경우는 13편(4.3%), 「문헌정보」는 18편(5.2%), 「정보관리」에서는 9편(3.9%)으로 다수 연구에서는 기획보고서 기반의 논문들이 많이 게재되는 「문헌정보」가 약간 우세하였다. 한편 「비블리아」는 단일저자 논문과 2명의 공저자 논문이 89%에 이르러 다른 학회지보다 가장 높은 반면, 「정보관리」는 81%로 가장 낮았다. 이로서 대다수의 논문들이 단일저자나 2명의 저자에 의하여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표 3〉 참조).

또 다른 한편 각 논문의 제1저자를 대상으로 저자의 직업군 분포를 분석하였다. 「비블리아」 논문의 저자 중 교수가 67.3%에 이르러 다른 학회지보다 가장 높았다. 또한 소속이 강사이거나 연구원 또는 회사원인 연구자의 비율을 다른 학회지보다 가장 낮은 반면, 사서와 대학원생의 비율은 가장 높았다. 특히 「비블리아」

〈표 3〉 「비블리아」 논문의 공저자 및 직업군 분포

				건수(%)			
저자수	비블리아	문헌정보	정보관리	직업군	비블리아	문헌정보	정보관리
1명	152(50.7)	192(55.8)	133(47)	교수	202(67.3)	229(66.6)	148(52.3)
2명	115(38.3)	101(29.4)	114(40.3)	강사	10(3.3)	22(6.4)	26(9.2)
3명	20(6.7)	33(9.6)	25(8.8)	사서	26(8.7)	20(5.8)	1(0.4)
4명	12(4.0)	13(3.8)	7(2.5)	대학원생	37(12.3)	30(8.7)	48(17.0)
5명	1(0.3)	4(1.1)	2(0.7)	연구원	15(5.0)	22(6.4)	29(10.2)
6명 이상	0	1(0.3)	2(0.7)	회사원	3(1.0)	21(6.1)	8(2.8)
				기타	7(2.4)	0	23(8.1)
합계	300	344	283	합계	300	344	283

와 「정보관리」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비블리아」와 「정보관리」의 주제영역이 다른 것에 기인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비블리아」는 앞서 말했듯이 도서관관련 정책 및 현안이나 이슈와 쟁점 등을 논하는 학술지로 사서들이 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기에 적합한 학술지인 반면, 정보검색과 계량정보학 분야가 주제영역인 「정보관리」에는 최신 기술응용과 이론적 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연구원이 논문을 발표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표 3〉 참조).

3.3 인용문헌 분포

3.3.1 인용문헌 유형별 분포

한 논문이 인용한 문헌들에 대한 분석은 연구논문의 보편적 특징과 주제영역을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먼저 인용문헌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비블리아」를 비롯하여 세 학술지가 가장 많이 인용한 문헌의 형태는 학술지이다. 학술지의 비율이 전체 인용문헌의 50%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관리」는 53.8%에 달한다. 특히 「비블리아」와 「문헌정보」는 학술지 다음으로 단행본, 그리고 사이트, 학위논문 순을 많이

인용하였으나, 「정보관리」는 학술지 다음으로 단행본, 보고서, 그리고 학술대회 논문집을 많이 인용하였다. 이로서 학술지의 주제영역 범주가 비슷한 「비블리아」와 「문헌정보」는 인용문헌 유형 분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4〉 참조).

3.3.2 연도별 인용문헌수 분포

「비블리아」 논문이 인용한 문헌의 연도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2012년에 가장 많은 문헌(27.14개)을 인용하였고 2010년에는 가장 적게(23.3개)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또 「문헌정보」에서는 2010년에 가장 많은 문헌을 인용한 후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고 「정보관리」에서는 이와 반대로 2010년에 가장 적게 인용하였으나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세 개의 학술지가 같은 현상을 보여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문헌의 인용비율을 분석한 결과 「비블리아」는 56%로, 「문헌정보」와 「정보관리」보다 높은 수치이며, 국내문헌 인용비율이 37.9%인 「정보관리」보다는 1.5배가 많은 수치이다. 따라서 「비블리아」 논문이 국내문헌 인용을 선호하고 있

〈표 4〉 인용문헌 유형별 인용빈도

구분	비블리아		문헌정보		정보관리	
	총 빈도(%)	논문당 빈도	총 빈도(%)	논문당 빈도	총 빈도(%)	논문당 빈도
학술지	3,842(49.7)	12.81	4,130(49.3)	12.01	4,094(53.8)	14.47
단행본	1,535(19.9)	5.12	1,887(22.5)	5.49	1,339(17.6)	4.73
학술대회논문집	353(4.5)	1.18	240(2.9)	0.70	553(7.3)	1.95
보고서	177(2.3)	0.59	115(1.4)	0.33	996(13.1)	3.52
학위논문	629(8.1)	2.10	456(5.4)	1.33	239(3.1)	0.69
사이트	1,073(13.9)	3.57	1,344(15.9)	3.91	322(4.4)	0.94
신문	52(0.7)	0.17	30(0.4)	0.09	15(0.2)	0.04
사전	25(0.3)	0.08	44(0.5)	0.13	20(0.3)	0.06
법령 및 현황	37(0.5)	0.12	119(1.4)	0.35	33(0.4)	0.10
기타	0(0.0)	0	6(0.07)	0.01	3(0.04)	0.01
합계	7,723(100)	25.74	8,371(100)	24.35	7,614(100)	26.51

〈표 5〉 연도별 논문당 인용문헌수

학 회 지	인용문헌수(국내문헌 비율)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비블리아	23.32(53.3%)	26.19(54.6%)	27.14(52.5%)	25.88(60.8%)	25.78(59.3%)	25.74(56.0%)
문헌정보	26.99(39.4%)	21.90(58.4%)	23.16(55.6%)	23.62(52.8%)	25.83(55.0%)	24.35(50.0%)
정보관리	24.85(28.5%)	25.56(43.8%)	27.49(34.2%)	28.93(43.2%)	28.12(39.5%)	26.51(37.9%)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 학술지 모두 점차적으로 국내문헌의 인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국내 연구가 다각적으로 그리고 많은 수의 연구가 발표되고 있어 이에 따라 연구자들이 국내 연구를 점차적으로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5〉 참조).

3.3.3 상위 20위의 인용학술지

세 학술지의 논문들이 인용한 학술지의 빈도를 조사하여 각 학술지별로 가장 많이 인용한 핵심 학술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비블리아」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4개 학술지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비블리아」의 300편의 논문들은 ‘한국문헌정보학회

지」를 가장 많이 인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로 문헌정보학 분야 국내 대표적 학술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어서 ‘JASIST’, ‘Library Trends’, ‘정보관리연구’ 순으로 인용하였다. 다만, 「문헌정보」와 「정보관리」의 인용 학술지 1위가 각각 「문헌정보」와 「정보관리」인 반면, 「비블리아」에서는 3위를 차지해 다른 2개의 학회지와는 다르게, 자기 인용을 많이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블리아」가 인용한 20위에 들은 학술지중 국내학술지는 8개인 반면 외국학술지는 12개였다. 그러나 「문헌정보」에서는 국내학술지가 6개이었고 「정보관리」는 5개로 「비블리

아」는 「문헌정보」와 「정보관리」보다는 국내 문헌을 더 많이 인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블리아」가 가장 많이 인용한 상위 20개의 학술지의 주제영역을 살펴본 결과, 문헌정보학 관련 학술지는 9개이었고 정보학 관련 학술지는 7개, 기록관리학, 역사, 그리고 건강관련 학술지가 각각 2개가 있었다. 이와는 다르게 「문헌정보」에는 12개의 문헌정보학 관련 학술지와 7개의

정보학 학술지 그리고 1개의 기록관리학 학술지가 포함되었고, 「정보관리」에는 13개의 정보학 관련 학술지와 7개의 문헌정보학 학술지가 포함되었다. 이로서 「비블리아」는 문헌정보학 및 정보학관련 학술지를 비슷하게 인용하여 다른 두 개의 학술지에서 보이는 주제영역의 싹임 현상이 안보였고, 또 국내논문들을 더 많이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

〈표 6〉 상위 20위 인용학술지

순위	학술지명(인용빈도)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1	한국문헌정보학회지(327)	한국문헌정보학회지(441)	정보관리학회지(416)
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31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437)	JASIST ²⁾ (253)
3	한국비블리아학회지(211)	정보관리학회지(246)	한국문헌정보학회지(242)
4	정보관리학회지(185)	한국비블리아학회지(201)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190)
5	JASIST(106)	JASIST(113)	한국비블리아학회지(135)
6	Library Trends(43)	J of Documentation(55)	Scientometrics(134)
7	정보관리연구(40)	IPM ³⁾ (53)	정보관리연구(61)
8	History Workshop Journal(37)	정보관리연구(45)	IPM(55)
9	J of CHI ⁴⁾ (37)	LIS Research(41)	J of Informetrics(45)
10	CCQ ⁵⁾ (35)	CCQ(38)	MIS Quarterly(44)
11	LIS Research(35)	CRL ⁶⁾ (35)	J. of Academic Lib(44)
12	IPM(32)	Scientometrics(30)	J. of Documentaiton(38)
13	한국기록관리학회지(31)	Library Trends(28)	CCQ(30)
14	J. of Academic Lib(30)	J. of Academic Lib(28)	Info. & Management(23)
15	Scientometrics(28)	한국기록관리학회지(24)	LIS Research(23)
16	B. of Med. Lib. Asso.(25)	Library Journal(21)	Library Hitech(21)
17	J. of Documentation(25)	B. of Med. Lib. Asso.(21)	Library Trends(21)
18	기록학연구(24)	J. of Info. Science(21)	D-Lib Magazine(17)
19	CRL(22)	J. of Lib. Info. Science(20)	Library and Information(17)
2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21)	Library Management(20)	Management Science(16)

2) JASIST: Journal of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 Technology
 3) IPM: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4) JCHI: Journal of Consumer Health on the Internet
 5) CCQ: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6) CRL: College and Research Library

〈표 7〉 인용학술지의 인용연도별 분포

연도	비블리아			문헌정보			정보관리		
	논문수	백분율	누적 백분율	논문수	백분율	누적 백분율	논문수	백분율	누적 백분율
0	29	0.93	0.93	20	0.49	0.49	30	0.76	0.76
1	96	3.09	4.02	102	2.51	3.00	102	2.59	3.24
2	111	3.58	7.60	203	4.98	7.98	188	4.77	8.12
3	211	6.79	14.39	267	6.56	14.53	280	7.10	15.22
4	253	8.14	22.53	280	6.88	21.41	318	8.07	22.54
5	280	9.01	31.54	369	9.06	30.47	291	7.38	29.68
6	285	9.17	40.71	384	9.43	39.90	311	7.89	38.56
7	226	7.28	47.99	305	7.49	47.39	310	7.86	46.42
8	181	5.83	53.81	264	6.48	53.87	302	7.66	52.34
9	216	6.95	60.77	238	5.84	59.71	243	6.16	60.25
10	163	5.25	66.01	224	5.49	65.21	186	4.72	64.97
11-15	565	18.18	84.20	720	17.68	82.89	704	17.86	82.83
16-20	199	6.40	90.60	295	7.24	90.13	314	7.97	90.79
21-25	99	3.19	93.79	154	3.78	93.91	130	3.30	94.09
26-30	45	1.45	95.23	87	2.14	96.05	71	1.80	95.89
31 이상	148	4.76	100	161	3.95	100	162	4.11	100
	3,107	100		4,073	100		3,942	100	

3.3.4 인용학술지의 인용연도 분석

「비블리아」 논문의 학술지 인용연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용된 학술지의 출판년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논문을 발표한 연도에 나온 학술지논문을 인용한 논문이 29편(1%)으로 다른 학회지보다 가장 높았다. 또한 논문이 발표된 해보다 31년 전에 발표된 논문을 이용한 비율이 약 5%인데, 이 역시 다른 학회지보다 높은 비율이다. 이로서 「비블리아」는 아주 최신 논문과 아주 오래된 논문을 다른 두 개의 학회지보다 좀 더 많이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블리아」가 가장 많이 인용한 논문은 발표된 지 6년이 된 논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정보」도 같았다. 그 반면, 「정보관리」는 발표된 지 4년의 논문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것으로 나타나 정보학분야의 논문이 보다 최신의 논문을 많이 인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감기 연도는 「비블리아」, 「문헌정보」, 「정보관리」 모두 7년과 8년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4. 내용분석

4.1 연구주제 분석

학술지를 분석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내용분석이다. 내용분석은 발표된 논문 하나하나를 분석하여 그 논문이 가지는 주제와 사용된 방법론의 패턴을 찾아내고 종합적으로 연구논문

의 현황과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내용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각의 문헌이 담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범주 안에 일련의 상호배타적인 분석유목을 구성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분석유목과 분석단위를 타당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일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먼저 오세훈(2005),⁷⁾ 송정숙(2010),⁸⁾ Zhao and Stromann(2008),⁹⁾ 강미희와 김정현(2014)¹⁰⁾ 연구에서 사용한 주제영역 범주와 2015년 연구재단¹¹⁾이 사용하고 있는 문헌정보학 분류를 이용하여 문헌정보학 영역을 총 15개의 주제영역으로 나누어 분석기준을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서관학 범주의 세부 주제 분류는 강미희와 김정현의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항목과 거의 일치하고, 정보학 범주의 세부주제는 서은경(2010)의 연구결과에서 보여진 정보학 분야의 핵심 영역만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이렇게 구성된 분석기준을 가지고 총 927편의 논문의 제목, 초록,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주제를 분석하였고 공동연구자간의 상호 교차 작업을 통해 한 연구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였다(〈표 8〉 참조).

내용분석 결과, 『비블리아』는 모든 주제 영역에 논문을 발표하고 있어 문헌정보학 분야 전반에 걸친 학술지임이 판명되었다. 그렇지만

『비블리아』는 도서관학 관련 연구(64%)를 정보학관련 연구(30%)보다 두 배 정도 많이 발표하고 있어 전통적인 도서관학 관련 연구가 보다 우세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문헌정보』에서 더 크게 보여졌다. 즉 『문헌정보』의 도서관학 관련 연구는 69.5%이고 정보학 관련 연구는 24.8%로, 비슷한 성격을 가진 두 학술지이지만 정보학 관련 논문이 『비블리아』에 더 많이 수록되고 있었다. 예상대로 『정보관리』에서는 정보학 관련 연구(54.1%)가 도서관학 연구(45.2%)보다 약간 많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아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도서관학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블리아』에서는 가장 적게 발표된 연구영역은 ‘정보처리 및 검색’으로 1%를 차지한 반면, ‘정보서비스’ 영역의 연구(17.3%)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구영역은 ‘운영 및 평가’(14.3%), ‘독서교육’(11.3%), ‘정보정책 및 이슈’(10.3%), ‘정보이용 및 행태’(10.3%)인데 이들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아, 『비블리아』에는 5개 영역의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달리 『문헌정보』는 ‘운영 및 평가’(24.7%)와 ‘정보서비스’(15.7%)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었고 그 나머지 영역의 논문은 평균 5%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정보관리』는 ‘정보서

7) 문헌정보학기초, 도서관운영, 자료조직, 출판, 도서관체계, 도서관 건물 및 설비, 참고정보봉사, 정보학, 서지학, 기록관리학.
 8) 문헌정보기초, 장서관리(관리), 정보서비스, 도서관경영, 도서 및 도서관사, 자료조직, 정보학, 기록학.
 9) 이용자이론, 인용분석, 검색실험, Webometrics, 학술적 커뮤니케이션, 지식도메인의 가시화, 정보추구, 메타데이터와 전자자원, 계량서지학, 아동정보 탐색행태, 적합성판정.
 10) 문헌정보학일반, 도서관경영, 자료조직, 장서관리, 정보서비스, 독서지도, 정보학, 서지학, 기록관리.
 11) 문헌정보학일반, 도서관/정보센터경영, 정보서비스, 정보자료/미디어, 정보조직, 정보검색, 디지털도서관, 정보공학, 계량정보학, 정보교육, 서지학, 기록관리/보존.

〈표 8〉 「비블리아」, 「문헌정보」, 「정보관리」의 연구주제 비교

주제범주	주제단위	논문수(%)			
		비블리아	문헌정보	정보관리	전체
도서관학	이론	4(1.3)	22(6.4)	9(3.2)	35(3.8)
	장서관리	9(3.1)	11(3.2)	6(2.0)	26(2.8)
	정보조직	20(6.7)	20(5.8)	27(9.5)	67(7.2)
	정보서비스	52(17.3)	54(15.7)	52(18.4)	158(17.0)
	운영 및 평가	43(14.3)	85(24.7)	17(6.0)	145(15.6)
	독서교육	34(11.3)	31(9.0)	1(0.4)	66(7.1)
	정보정책 및 이슈	31(10.3)	16(4.7)	16(5.7)	63(6.8)
	소계	193(64.3)	239(69.5)	128(45.2)	560(60.4)
정보학	메타데이터	11(3.7)	15(4.4)	30(10.6)	56(6.0)
	정보이용 및 행태	31(10.3)	12(3.5)	16(5.7)	59(6.4)
	정보처리 및 검색	3(1.0)	22(6.4)	34(12.0)	59(6.4)
	정보시스템	12(4.0)	11(3.2)	7(2.5)	30(3.2)
	시스템평가	10(3.3)	11(3.2)	15(5.3)	36(3.9)
	계량정보학	23(7.7)	14(4.1)	51(18.0)	88(9.5)
	소계	90(30.0)	85(24.8)	153(54.1)	328(35.4)
서지학	5(1.7)	11(3.2)	0(0.0)	16(1.7)	
기록관리학	12(4.0)	9(2.5)	2(0.7)	23(2.5)	
합계	300(100)	344(100)	283(100)	927(100)	

비스'(18.4%)와 '계량정보학'(18.0%) 분야의 논문이 많았고, 다음으로는 '정보처리 및 검색'(12.0%)과 '메타데이터'(10.6%) 연구논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각 학술지의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구비중이 10% 이상의 연구영역이 「비블리아」는 5개이고 「정보관리」는 4개인 반면, 「문헌정보」는 2개로, 「비블리아」의 핵심영역이 다른 학술지보다는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다른 학술지보다 「비블리아」에 가장 많이 발표한 주제영역은 '독서교육'(11.3%), '정보정책 및 이슈'(10.3%), '정보이용 및 행태'(10.3%)이었다. 특히 '정보정책 및 이슈' 관련 연구와 '정보이용 및 행태' 연구는 다른 학술지보다 두 배 정도 많았고, 「정보관리」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분야인 '독서교육' 관련 연구도 「문헌정보」보다

논문편수가 많았다. 다른 학술지보다 「비블리아」에 가장 적게 발표된 주제영역은 '정보처리 및 검색'(1.0%), '도서관학 이론'(1.3%), '메타데이터'(3.7%)이었다. 그리고 서지학과 기록관리학 관련 논문 비중 역시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개의 영역별 전국 학회가 설립되어 있고 각 학회에서는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기 때문이다(〈표 8〉 참조).

4.2 연구방법론 분석

「비블리아」에 실린 논문의 방법론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논문이 사용한 연구방법론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자는 각 논문의 연구방법과 초록에 쓰여진 내용을 기반으로 주된 방법론 하나만을

선정하였다. 물론 모든 연구가 하나의 방법만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지만 특히 초록이나 주제어에서 밝힌 방법론을 우선시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연구에서 주로 분석된 데이터를 수집한 방법을 우선시하여 채택하였다. 연구방법론 분석 역시 주제영역 범주를 설정하는 방식과 같은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행되었다. 즉 먼저 연구방법 분류범주를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빈도를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의 범주는 Pickead(2007),¹²⁾ 장윤미와 정연경(2013),¹³⁾ Chu(2015)¹⁴⁾ 이 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항목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석기준 10개의 항목(개념적 고찰, 이론적 모형, 실험적 방법, 서베이 방법, 평가 방법, 계량정보학, 질적 방법, 사례연구, 서지학적 연구, 리뷰연구)을 정하였다.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비블리아』는 서베이 방법(36.7%)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

타났다. 서베이 방법은 특정 이슈, 주제, 대상 등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성향을 설문지나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비블리아』에서 많이 발표된 ‘정보서비스’, ‘독서교육’, ‘정보이용 및 행태’ 등의 연구 주제에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사례연구(25.7%)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비블리아』에는 하나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방법론은 리뷰연구(8.3%)와 계량정보학 방법론(8.0%)이나 앞서 언급한 방법론의 비중보다는 크게 떨어진다.

또한 『문헌정보』에서는 사례연구(41.0%)와 서베이 방법(29.7%)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나머지 방법론은 5%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달리 『정보관리』에서는 10% 이상의 비중을 가진 연구 방법론이 5개나 보였다. 즉 계량정보학(23.0%),

〈표 9〉 『비블리아』, 『문헌정보』, 『정보관리』의 방법론 비교

방법론	비블리아	문헌정보	정보관리
개념적 고찰	18(6.0)	16(4.7)	35(12.4)
이론적 모형	10(3.3)	5(1.5)	41(14.5)
실험적 방법	15(5.0)	18(5.2)	16(5.7)
서베이 방법	110(36.7)	102(29.7)	62(21.9)
평가 방법	14(4.7)	8(2.3)	6(2.1)
계량정보학	24(8.0)	13(3.8)	65(23.0)
질적 방법	5(1.7)	19(5.5)	9(3.2)
사례 연구	74(24.7)	141(41.0)	44(15.5)
서지학적 연구	5(1.7)	12(3.5)	0(0.0)
리뷰연구	25(8.3)	10(2.9)	5(1.8)
합계	300(100)	344(100)	283(100)

12) 실험 연구, 설문 조사, 델파이 연구, 사례 연구, 역사 연구, 행동 연구, 근거이론, 민족학 연구, 사용성 테스트방법.
 13) 문헌연구, 실험연구, 서베이 연구, 설문지, 인터뷰, 평가연구, 계량정보학적 방법, 사례 연구, 서지학적 방법, 시스템분석/설계, 운영연구, 역사적 연구방법.
 14) 이론적 접근, 실험, 현장연구, 델파이 연구, 계량서지학, 내용분석, 관찰, 연구일기, 역사적 연구, 포커스 그룹 방법.

서베이 방법(21.9%), 사례연구(15.5%), 이론적 모형(14.5%), 개념적 고찰(12.4%) 방법론을 『정보관리』 논문에서 활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비블리아』와 『문헌정보』는 주제분야의 분포에서도 비슷했듯이 연구방법론의 분포에서도 역시 비슷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베이 방법(29.6%)과 사례연구(27.9%)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서관의 ‘정보서비스’와 ‘운영 및 평가’ 분야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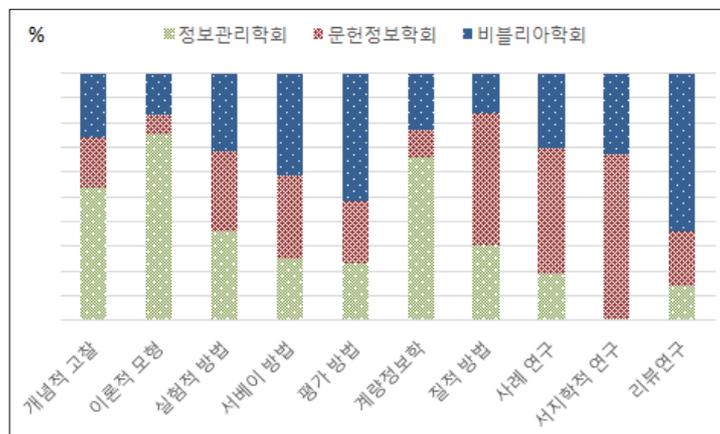
다른 학술지와 비교해서 『비블리아』에서 더 많이 사용한 방법론은 ‘리뷰연구’이고 그 다음으로는 ‘평가방법’, ‘서베이 방법’이며, 특히 ‘리뷰연구’는 다른 학술지보다 월등히 많은 수의 논문이 있었다. 가장 적게 사용된 연구방법론은 ‘질적 방법’으로 5편의 논문(1.7%)만이 사용하였다. 또한 『정보관리』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비블리아』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연구방법은 ‘계량정보학’과 ‘이론적 모형’ 연구이고 『문헌정보』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비블리아』

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연구방법은 ‘서지학적 연구’와 ‘질적 방법’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4.3 키워드 분석

각 논문에 실린 저자키워드는 저자가 수행한 연구에 대한 내용을 표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출현한 키워드의 빈도를 분석하는 것은 바로 그 시기에 어느 주제를 연구자들이 많이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5년 동안 『비블리아』에서 가장 많이 이슈화된 연구주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저자가 추출한 국문키워드를 대상으로 그 빈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빈도분석 전에 먼저 일부 어휘에 대한 수작업 전거작업을 수행하여 용어를 정규화시켰다. 즉 연구자는 용어의 띄어쓰기와 동의어를 일치시켰고, 외래어 표기인 경우에는 영문키워드와 맵핑을 한 후 대표적 용어로 통일시켰다.

그 결과, 『비블리아』에서 출현빈도 5회 이상



〈그림 1〉 각 학술지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의 비율 비교

의 키워드는 31개이었고,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는 공공도서관으로 42회였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도서관(28회), 학교도서관(22회), 사서교사(12회), 한국십진분류법(10회), 정보서비스(10회), 이용자연구(10회), 도서관 경영(9회), 이용자만족도(8회), 도서관서비스(8회), 듀이십진분류법(7회) 순으로 키워드가 출현하였다. 또한 『비블리아』에 5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를 살펴보면 정보학 관련 용어는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 분류, 경영, 서비스프로그램, 독서, 이용자 연구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를 이루어 『비블리아』 논문들은 주로 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직, 서비스 그리고 경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0〉 참조).

한편, 927편의 논문에서는 10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가 41개이며 12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는 31개였다. 전체 논문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키워드는 공공도서관(115회)이고, 이어서 대학도

서관(63회), 학교도서관(41회), 정보활용능력(29회), 이용자연구(23회), 사서교사(20회), 네트워크분석(19회), 이용자만족도(18회), 문헌정보학(18회), 도서관경영(18회), 도서관서비스(18회), 한국십진분류법(17회), 정보서비스(17회), 인용분석(17회) 순으로 나타났다. 『비블리아』이든 전체 세 학술지이든 상위 3위의 키워드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이었는데, 이는 대다수의 연구들이 세 관종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자들이 공공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최근 들어 공공도서관들이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건립되고 또 공공도서관 서비스 평가, 행정체제, 이용 활성화 등과 같은 현안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논의되고 제안되고 있는 현상이 연구에서도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0〉 상위 『비블리아』 키워드와 3개 학술지 상위 키워드 비교

순위	『비블리아』		전체		순위	『비블리아』		전체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1	공공도서관	42	공공도서관	115	17	문화프로그램	6	대학생	16
2	대학도서관	28	대학도서관	63	18	소셜네트워크서비스	6	도서관	15
3	학교도서관	22	학교도서관	41	19	사서	6	지적구조	14
4	사서교사	12	정보활용능력	29	29	독서교육	6	작은도서관	14
5	한국십진분류법	10	이용자연구	23	21	정보추구행태	5	도서관정책	14
6	정보서비스	10	사서교사	20	22	이용자인식	5	서비스품질	14
7	이용자연구	10	네트워크분석	19	23	온라인열람목록	5	사서	14
8	도서관경영	9	이용자만족도	18	24	장서관리	5	디지털도서관	14
9	이용자만족도	8	문헌정보학	18	25	독서	5	국립중앙도서관	14
10	도서관서비스	8	도서관경영	18	26	독서치료	5	동시출현단어분석	13
11	듀이십진분류법	7	도서관서비스	18	27	블로그	5	문화프로그램	13
12	지적구조	6	한국십진분류법	17	28	독서프로그램	5	장서개발	12
13	정보활용교육	6	정보서비스	17	29	모바일서비스	5	오픈엑세스	12
14	정보활용능력	6	인용분석	17	30	디지털도서관	5	온톨로지	12
15	작은도서관	6	연구동향	16	31	메타데이터	5	듀이십진분류법	12
16	장서개발	6	메타데이터	16					

〈표 11〉 ‘공공도서관’ 키워드를 가진 논문의 연구주제 및 방법론 분포

주제 분야	비블리아	문헌정보	정보관리	방법론	비블리아	문헌정보	정보관리
이론	0	0	0	개념적고찰	2	1	0
장서관리	3	3	1	이론적모형	0	0	3
정보조직	1	2	0	실험연구	1	0	1
정보서비스	9	15	7	서베이연구	23	19	10
운영 및 평가	14	24	0	평가연구	2	1	2
독서교육	6	3	0	계량정보학 연구	0	0	2
정보정책 및 이슈	4	1	2	질적연구	0	2	0
메타데이터	0	0	6	사례연구	11	29	1
정보이용 및 추구	5	1	0	서지학연구	0	0	0
정보처리 및 검색	0	1	2	리뷰연구	3	2	0
정보시스템	0	4	0				
시스템평가	0	0	0				
계량정보학	0	0	1				
합계	42	54	19	합계	42	54	19

다음으로 본 연구는 927편의 논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어떠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어떠한 방법론을 이용하였는지를 학술지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블리아」와 「문헌정보」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평가’와 공공도서관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다. 특히 「문헌정보」에서는 이 두 영역에 집중되어 연구가 수행된 반면, 「비블리아」는 ‘독서교육’, ‘정보이용 및 추구’, ‘정보정책 및 이슈’ 주제 영역에서도 공공도서관 연구가 수행되고 있어, 다른 학술지보다 공공도서관 연구가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비블리아」 논문 중 55%가 서베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문헌정보」의 35%, 「정보관리」의 53%가 서베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하나의 대상을 평가하는 평가방법론을 사용한 논문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아마 상용으로 발표된 지표

를 이용하기 보다는 각 기관에 적합하고 또 연구 목적에 적합한 서베이 도구를 개발하여 연구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11〉 참조).

5. 지적구조 분석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비블리아」에 발표된 연구논문의 지적구조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 먼저 「비블리아」 논문에서 추출된 상위 키워드 31개와 3개의 학술지 논문에서 추출된 상위 키워드 41개를 가지고 키워드 지적구조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재윤이 개발한 COOC ver 0.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키워드 간의 동시출현단어분석(co-word analysis)을 수행하였고, 다음으로 WNET ver 0.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패스파인더 네트워크(PFNet)와 병렬 최근접 이웃 클러스터링(PNNC), 가중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WCNET) 등을 NodeXL로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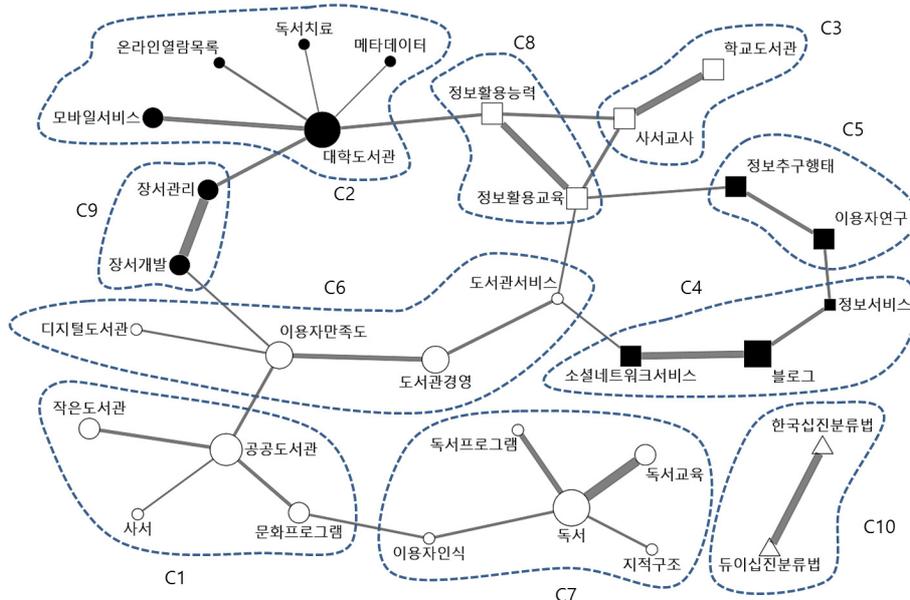
화하여 지적구조를 생성하였다(이재운 2006a). 네트워크는 키워드의 지역중심성에 따라 노드의 크기를 달리 하였으며, 링크의 굵기는 키워드 간의 코사인 유사도 값을 반영하여 보여주었다.

5.1 『비블리아』의 지적구조 분석

『비블리아』의 상위 키워드 31개를 대상으로 주제어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PNNC 알고리즘에 의해 클러스터를 생성한 결과, 크게 5개 영역 즉 1) 공공도서관과 독서 영역(○), 2) 대학도서관과 장서관리 영역(●), 3) 학교도서관과 정보활용 영역(□), 4) 도서관 정보서비스와 이용자 연구 영역(■), 5) 분류 영역(△)이 나타났다. <그림 2>는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어 10개 영역(도서관경영과 서비스, 공공도

서관, 독서, 분류법,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정보추구행태, 정보활용,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장서관리)이 형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도서관경영과 서비스 영역이 다른 주제영역과 연결시켜주는 핵심 주제영역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4.1장 연구주제 분석에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드와 노드를 연결한 링크의 굵기는 유사도 값을 반영하는 것으로 『비블리아』 논문에서 가장 동시출현빈도가 높아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용어는 ‘장서개발-장서관리’(0.73)와 ‘독서교육-독서’(0.73)이었다. 그 다음으로 ‘한국십진분류법-듀이십진분류법’(0.60), ‘학교도서관-사서교사’(0.55), ‘소셜네트워크-블로그’(0.55), ‘정보활용교육-정보활용능력’(0.5), ‘독서프로그램-독서’(0.4)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 가장 유사성이 낮은 두 용어는 ‘독서치료-대



<그림 2> 『비블리아』의 코사인 유사도 행렬을 이용한 네트워크(C 10)

학도서관'과 '메타데이터-대학도서관'으로 그 연관성이 값이 0.08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도서관 관련 연구에서는 독서치료나 메타데이터와 같은 주제 영역을 다루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비블리아」의 가중네트워크 중심성을 분석하기 위해 네트워크 전체를 고려한 삼각매개중심성(TBC)과 노드 주변만을 고려한 최근접이웃중심성(NNC)을 척도로 하여 31개 키워드의 전역중심성과 지역중심성을 측정하였다. 전역중심성은 해당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의 범위를 말해주는 것으로, 그 수치가 높을수록 폭넓은 연구 주제 영역에서 다양한 키워드와 연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지역중심성은 해당 키워드가 속한 군집이나 주제 영역 내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지역중심성이 높을수록 그 키워드는 개별적인

고 세부적인 연구 주제로 많이 다뤄지고 있으며, 해당 군집 내에서 다른 키워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재운 2006b).

「비블리아」의 가중네트워크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전역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대학도서관'이었고, 이어서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정보서비스', '이용자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대학도서관'이고, 이어서 '독서', '공공도서관', '이용자만족도', '도서관경영' 순으로 나타났다. 전역중심성과 지역중심성이 모두 높게 나타난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다른 주제와 함께 연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한편으로 독자적인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서, 자신이 속한 군집 내의 다른 키워드에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전역중심성은 높지만 지역중심성은 낮게 나온

〈표 12〉 「비블리아」 주제어의 중심성 순위(상위 1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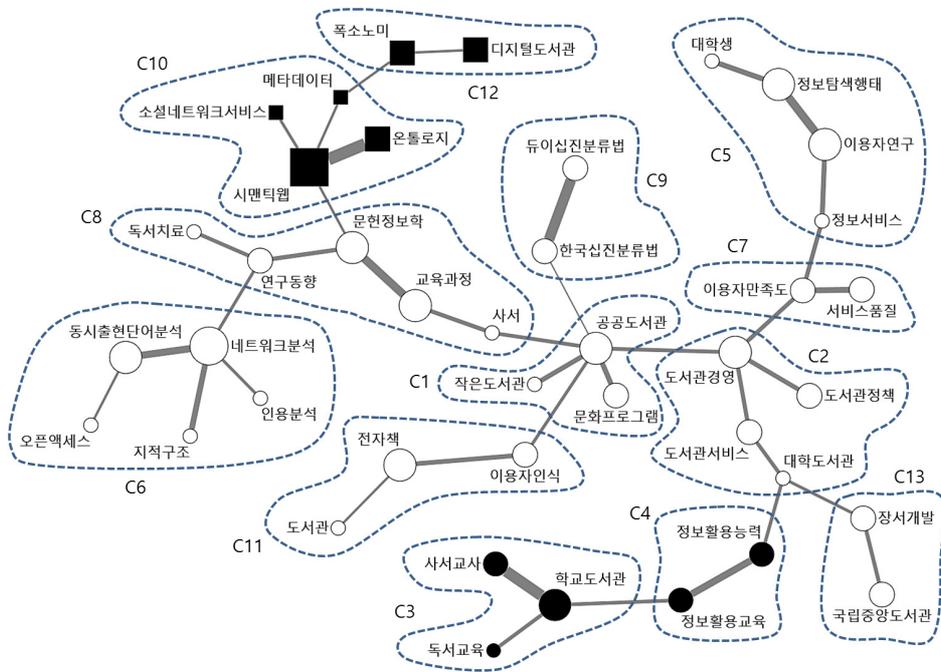
전역중심성(삼각매개중심성 TBC)					지역중심성(최근접이웃중심성 NNC)				
순위	주제어	출현 빈도	rTBC (0~1)	NNC 순위	순위	주제어	출현 빈도	rNNC (0~1)	TBC 순위
1	대학도서관	28	0.25517	1	1	대학도서관	28	0.13333	1
2	공공도서관	42	0.1908	3		독서	5	0.13333	12
3	학교도서관	22	0.06437	7	3	공공도서관	42	0.1	2
4	정보서비스	10	0.04828	21		이용자만족도	8	0.06667	5
5	이용자만족도	8	0.03908	4	4	도서관경영	9	0.06667	6
6	도서관경영	9	0.03448	4		블로그	5	0.06667	15
7	소셜네트워크서비스	6	0.03218	7		학교도서관	22	0.03333	3
8	이용자연구	10	0.02759	7		소셜네트워크서비스	6	0.03333	7
9	정보활용교육	6	0.02529	7		이용자연구	10	0.03333	8
10	사서교사	12	0.02069	7		정보활용교육	6	0.03333	9
11	도서관서비스	8	0.01839	22	7	사서교사	12	0.03333	10
12	장서개발	6	0.01379	7		장서개발	6	0.03333	12
	독서	5	0.01379	1		정보추구행태	5	0.03333	14
14	정보추구행태	5	0.01149	7		문화프로그램	6	0.03333	18
	온라인열람목록	5	0.01149	23		독서교육	6	0.03333	19

‘정보서비스’와 ‘온라인열람목록’은 개별적으로 다루지는 독자적인 연구 주제라기보다는 다른 주제어와 함께 연구의 한 부분으로 다루지는 주제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독서’와 ‘블로그’는 지역중심성은 높지만 전역중심성이 낮게 나타났다는데, 이것은 ‘독서’와 ‘블로그’를 다른 연구의 범위가 비교적 제한되어 있으며, 주로 ‘독서’와 ‘블로그’를 단독 주제로 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12〉 참조).

5.2 세 학술지의 지적구조 분석

「비블리아」 연구와 같은 시기에 「비블리아」와 「문헌정보」 그리고 「정보관리」에 발표한 연구들의 차이점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세 학술지의 논문에서 도출된 상

위 키워드 41개를 대상으로 세 학술지의 지적구조와 클러스터를 생성하였다. 물론 지적구조와 클러스터 생성방식은 「비블리아」를 대상으로 하여 사용한 방식과 같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41개 키워드를 대상으로 생성된 지적구조는 「비블리아」의 지적구조와는 다르게 크게 3개의 영역 즉 ‘도서관 경영과 문헌정보학 일반 영역(○)’, ‘시맨틱웹과 디지털도서관 영역(■)’, 그리고 ‘학교도서관과 정보활용 영역(●)’이 나타났다 특히 정보학 관련 주제영역이 뚜렷하게 가시화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세 개의 큰 영역은 다시 공공도서관, 도서관경영, 이용자 인식, 분류법, 학교도서관, 정보활용, 장서개발, 서비스품질, 이용자연구, 연구동향, 네트워크분석, 시맨틱웹, 디지털도서관과 같이 13개의 영역으로 생성되었다.



〈그림 3〉 세 학술지의 코사인 유사도 행렬을 이용한 네트워크(C 13)

‘대학도서관’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비블리아’의 지적구조와는 다르게 세 학술지의 지적구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학 전반의 주제영역이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도서관경영과 연결된 ‘장서개발, 정보활용능력, 학교도서관’, 그리고 공공도서관과 ‘이용자인식, 교육과정’은 ‘비블리아’의 지적구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정보탐색행태 영역은 ‘정보서비스, 이용자만족도’와 연결되어 두 개의 클러스터 형성되었고 그 결과 정보탐색행태 영역은 확장되었다. ‘비블리아’ 논문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대학도서관’ 클러스터와 ‘독서’ 클러스터는 세 학술지의 지적구조에서는 미미하게 나타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위상도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대학도서관’과 ‘독서’ 그리고 ‘소셜네트워크’는 다른 두 학술지보다 ‘비블

리아’에서 보다 많이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비블리아’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정보학 분야의 세 개의 클러스터(시멘틱웹, 디지털도서관, 용어네트워크분석)가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정보관리’의 논문이 포함된 결과이고 이들이 최근 정보학분야의 관심영역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표 13>과 같이 세 학술지의 가중네트워크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비블리아’ 지적구조와는 다르게 전역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공공도서관’이며, 이어서 ‘대학도서관’, ‘이용자만족도’, ‘학교도서관’, ‘정보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네트워크분석’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시멘틱웹’,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문헌정보학’, ‘도서관경영’ 순으로 나타났다. 전역중심성과 지역중심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난

<표 13> 세 개 학술지 주제어의 중심성 순위(상위 15개)

전역중심성(삼각매개중심성 TBC)					지역중심성(최근접이웃중심성 NNC)				
순위	키워드	출현 빈도	rTBC (0~1)	NNC 순위	순위	키워드	출현 빈도	rNNC (0~1)	TBC 순위
1	공공도서관	115	0.30769	3	1	네트워크분석	19	0.075	13
2	대학도서관	63	0.20128	29		시멘틱웹	10	0.075	29
3	이용자만족도	18	0.08846	12	3	공공도서관	115	0.05	1
4	학교도서관	41	0.07179	3		학교도서관	41	0.05	4
5	정보서비스	17	0.06154	30		문헌정보학	18	0.05	6
6	문헌정보학	18	0.05513	3		도서관경영	18	0.05	7
7	도서관경영	18	0.05385	3		전자책	11	0.05	20
8	도서관서비스	18	0.04231	12		정보탐색행태	11	0.05	22
9	연구동향	16	0.03974	12		이용자연구	23	0.05	25
10	사서	14	0.03590	31		동시출현단어분석	13	0.05	31
11	문화프로그램	13	0.02949	12		교육과정	11	0.05	35
12	소셜네트워크서비스	11	0.02436	32		12	이용자만족도	18	0.025
13	네트워크분석	19	0.02179	1	도서관서비스		18	0.025	8
14	정보활용능력	29	0.01795	17	연구동향		16	0.025	9
	지적구조	14	0.01795	33	문화프로그램		13	0.025	11

키워드는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도서관경영’이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도서관경영’을 주제로 독자적인 연구가 수행된 것과 동시에 또 다른 주제와 연계하여 연구되어 자신이 속한 군집 내의 다른 키워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대학교도서관’은 전역중심성은 높지만 지역중심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대학교도서관’이 개별적으로 다루지는 독자적인 연구 주제라기보다는 데이터베이스, OPAC, 장서개발 및 관리, 도서관 경영, 이용자 서비스 등 다른 키워드와 함께 연구의 한 부분으로 다루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는 반대로 ‘네트워크 분석’, ‘시맨틱웹’은 전역중심성은 낮지만 지역중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네트워크 분석’과 ‘시맨틱웹’을 다룬 연구의 범위가 비교적 제한되며 단독 주제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6.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 대표 학술지인 『비블리아』의 최근 5년간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비블리아』가 표방하는 연구영역과 핵심주제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2010-2014년 동안에 『비블리아』, 『문헌정보』, 『정보관리』에 실린 총 927편의 논문에 대하여 계량서지학적 분석, 내용분석, 그리고 지적구조 분석을 수행하고 각 학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비블리아』가 가지는 주된 연구행태 및 영역을 밝혔다.

첫째, 『비블리아』는 호당 평균적으로 15편의

논문을 실고 있으며, 각 논문의 저자 수는 1.65명이고 단일저자 논문과 2명의 공저자 논문이 89%에 이른다. 또한 각 논문은 평균 25.7개의 문헌을 인용하고 있었는데 이중 50%가 학술지였고, 발표된 지 6년이 된 논문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블리아』의 서지적 행태는 『문헌정보』와 매우 비슷하였고 『정보관리』와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비블리아』는 문헌정보학 및 정보학관련 학술지를 비슷한 비중으로 인용하여 다른 두 개의 학술지에서 보이는 주제영역의 쏠림 현상이 안보였고 또 국내 문헌을 더 많이 인용하고 있었다.

둘째, 『비블리아』는 모든 주제 영역에 논문을 발표하고 있어 문헌정보학 분야 전반에 걸친 학술지임이 판명되었다. 그렇지만, 도서관학 관련 연구(64%)를 정보학관련 연구(30%)보다 두 배 정도 많이 발표하고 있어 전통적인 도서관학 관련 연구가 훨씬 우세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문헌정보』가 더 심해 비슷한 주제성격을 가진 두 학술지이지만 정보학 관련 논문은 『비블리아』에 더 많이 발표하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정보서비스’ 주제는 세 학술지 모두의 핵심주제 영역임을 알 수 있었고, 『비블리아』에는 ‘정보서비스’, ‘운영 및 평가’, ‘독서교육’, ‘정보정책 및 이슈’, ‘정보이용 및 행태’ 등 5개의 주제영역의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었다. 반면, 『문헌정보』의 논문은 ‘운영 및 평가’와 ‘정보서비스’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었고 『정보관리』의 논문은 ‘정보서비스’와 ‘계량정보학’, ‘정보처리 및 검색’, ‘메타데이터’ 주제 영역에 많이 나타났다.

셋째, 『비블리아』는 서베이 방법(36.7%)과 사례연구(25.7%)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리뷰연구(8.3%)와 계량정보학 방법론(8.0%)을 사용하였지만 그 비중은 낮았다. 『문헌정보』는 사례연구(41.0%)와 서베이 방법(29.7%)을 압도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외 방법론의 비중은 5%이하에 그치며, 『정보관리』에서는 계량정보학(23.0%), 서베이 방법(21.9%), 사례연구(15.5%), 이론적 모형(14.5%), 개념적 고찰(12.4%) 등 보다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블리아』와 『문헌정보』는 주제분야의 분포에서도 비슷했듯이 연구방법론의 분포에서도 역시 비슷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베이 방법(29.6%)과 사례연구(27.9%)를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서관의 '정보서비스'와 '운영 및 평가' 분야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비블리아』에서 국문 저자키워드로 가장 많이 출현한 용어는 '공공도서관'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한국십진분류법', '정보서비스', '이용자연구', '도서관 경영', '이용자만족도', '도서관서비스', '듀이십진분류법' 등이다. 또한 『비블리아』에 5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를 살펴보면 정보학 관련 용어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전체 세 학술지와 『비블리아』의 상위 3위안에 드는 키워드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으로, 이는 대다수의 연구들이 세 관종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자들이 공공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어떠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어떠한 방법론을 이용하였는지를

학술지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평가'와 '공공도서관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다. 다만 『문헌정보』에서는 이 두 영역에 집중되어 연구가 수행된 반면, 『비블리아』는 '독서교육', '정보이용 및 추구', '정보정책 및 이슈' 주제 영역에서도 공공도서관 연구가 수행되고 있었다. 또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비블리아』 논문 중 55%가 서베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문헌정보』는 35%만 서베이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었다.

다섯째, 『비블리아』의 지적구조를 분석한 결과 '공공도서관과 독서', '대학도서관과 장서관리', '학교도서관과 정보활용', '도서관 정보서비스와 이용자 연구', '분류' 등 모두 5개 영역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전역중심성과 지역중심성 값 모두가 높아, 이 두 용어는 여러 주제 영역에서 다양한 키워드와 연계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제 영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대학도서관'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비블리아』의 지적구조와는 다르게 세 학술지의 지적구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학 전반의 주제영역이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도서관경영과 연결된 '장서개발, 정보활용능력, 학교도서관', 그리고 공공도서관과 '이용자인식, 교육과정'은 『비블리아』의 지적구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비블리아』 논문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대학도서관' 클러스터와 '독서' 클러스터가 세 학술지의 지적구조에서는 미미하게 나타났고 또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블로그' 키워드는 상위 용어로 선

정되지 않아 지적구조에서 보이지 않았다.

「비블리아」는 문헌정보학분야의 모든 주제를 포괄하는 학술지이며 서지적 행태면에서 보면 「문헌정보」와 「정보관리」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다른 학술지보다 도서관 경영, 도서관정책, 독서교육의 연구가 두드러졌고 관중별 도서관을 중심으로 실용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모바일서비스, 작은도서관 등 최근 현장의 움직임이 지적구조에 가시

화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비블리아」가 현장의 최근 동향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5년간의 최근 논문만을 대상으로 연구동향과 지식구조를 살펴봄으로서 「비블리아」가 가지는 전체적 특성과 성장 및 변화를 조명할 수 없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비블리아」의 변화와 경향을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미희, 김정현. 20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457-482.
- 김미설, 장우권. 2015. 도서관마케팅 프로모션의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2(1): 171-204.
- 김정현. 2011. 한국의 자료조직 분야 연구동향 분석: 1970-20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3): 149-164.
- 김하진, 송민. 2014.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한 국내외 정보학 학회지 연구동향 파악. 『정보관리학회지』, 31(1): 99-118.
- 김판준. 2015. 디지털 큐레이션 연구동향 분석과 과제: 문헌정보학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2(1): 265-295.
- 박옥남. 2011. 정보조직 지식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3): 247-267.
- 박자현, 송민. 2013.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0(1): 7-32.
- 박지연, 정동열. 2013. 저자서지결합분석에 의한 문헌정보학의 지적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4): 31-59.
- 서은경. 2010. 「정보관리학회지」 연구의 동향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7(4): 7-32.
- 송정숙. 2010. 한국 문헌정보학의 연구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333-353.
- 신현석, 가시현, 이경호, 주영효. 2013. 학술지 「한국교육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1974-2012)」. 『한국

- 교육』, 40(4): 207-238.
- 연구재단. 2015. 학술연구분야 분류표. 연구재단.
- 오세훈. 2005.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 및 인용문헌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3): 379-408.
- 유사라. 2010. 메타데이터 주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405-426.
- 이수상. 2010. 공저 네트워크 분석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2): 297-315.
- 이석형, 류범중. 2014. 과학기술 진거데이터를 이용한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동향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4): 377-399.
- 이재운. 2006a. 지적구조 분석을 한 새로운 클러스터링 기법에 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3(4): 215-231.
- 이재운. 2006b. 계량서지적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중심성 척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3): 191-214.
- 이종욱, 양기덕. 2011. 한국 문헌정보학 연구의 계량적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4): 53-76.
- 이용재, 김경덕. 2014. 한국 도서관경영 연구의 동향: 2004~2013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4): 25-50.
- 이혜영. 2015. 한국에서의 대학도서관 연구동향. 『정보관리학회지』, 32(2): 153-165.
- 장윤미, 정연경. 2013. 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1): 25-44.
- 조인숙, 한미숙. 2007. 문헌정보학분야 연구자들의 학회지 게재논문과 인용 학술지 분석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2): 89-105.
- 조재인. 2011.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통한 문헌정보학 최근 연구 경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8(4): 65-83.
- Blessinger, K and M. Frasier. 2007. "Analysis of a Decade in Library Literature: 1994-2004."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8(2): 155-169.
- Choi, Sang-hee. 2011. "An Informetric Analyses on Intellectual Structures with Multiple features of Academic Library Research Pap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2): 65-78.
- Chu, H. 2015. "Research Metho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 Content Analysi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7: 36-41.
- Kim, Su-Yeon, Sung-Jeon Song, & Min Song. 2015. "Investigation of Topic Trends in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 by Text Mining Techniques: From the perspective of conferences in DBLP."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1): 135-152.
- Luo, L. and M. McKinney. 2015. "JAL in the Past Decade_a Comprehensive Analysis of Academic Library Research."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1: 123-129.

- Milojević, S., C. R. Sugimoto, E. J. Yan, and Y. Ding. 2011. "The Cognitive Structur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alysis of Article Title Word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2(10): 1933-1953.
- Park, Myung-Kyu and Hee-Jung Kim, 2011. "A Bibliometric Analysis of the Literature on Information Litera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2): 53-63.
- Pickead, J. A. 2007. *Research Methods in Information*. Facet Publishing: London.
- Seo, Eun Gyoung and So Young Yu, 2013. "Detecting Research Trends in Korean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000-201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4): 215-239.
- Zhao, D. and A. Stromann. 2008. "Information Science During the First Decade of the Web: An Enriched Author Cocitation 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9(6): 916-937.

[웹사이트]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15.8.3]. <<https://kbiblia.jams.or.kr>>.

[프로그램]

이재윤. COOC ver 0.3.1 [cited 2012.9.22].

이재윤. WNET ver 0.4 [cited 2012.9.22].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Yun-Mee and Yeon-Koung Chung. 2013. "A Study o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about Classific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Biblio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1): 25-44.
- Cho, Jane. 2011. "A Study for Research Are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by Network Text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4): 65-83.
- Cho, In-Sook and Mi-Sook Han. 2007. "An Analysis on the Articles and Cited Journals Suggested by LIS Researchers of Korea." *The Journal of Korean Biblio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8(2): 89-105.

- Kang, Mi-Hee and Jeong-Hyen Kim. 2014. "A Study on Research Trends of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4): 457-482.
- Kim, Ha-Jin and Min Song. 2014.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in Domestic/International Information Science Articles by Co-word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1): 99-118.
- Kim, Jeong-Hyen. 2011.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Resource Organization in Korea: 1970~2010."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3): 149-164.
- Kim, Mi-seol and Woo-Kwon Chang. 2015.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 of Library Marketing Promo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1): 171-204.
- Kim, Pan-Jun. 2015.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Digital Curation: Focused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1): 265-295.
- Lee, Jae-Yun. 2006a. "A Novel Clustering Method for Examining and analyz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A scholarly Fiel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3(4): 215-231.
- Lee, Jae-Yun. 2006b. "Centrality Measures for Bibliometric Network Analysi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3): 191-214.
- Lee, Jong-Wook and Ki-Duck Yang. 2011. "A Bibliometric Stud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4): 53-76.
- Lee, Seok-Hyoung and Beom-Jong You. 2014.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using S&T Authority Data."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4): 377-399.
- Lee, Soo-Sang. 2010. "A Preliminary Study on the Co-author Network Analysis of Korea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Commun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2): 297-315.
- Lee, Yong-Jae and Kyoung-Doc Kim. 2014. "A Study on Trends of Library Management Research in Korea: Focused on Academic Papers 2004~2013."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4): 25-50.
- Oh, Se-Hoon. 2005.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by analyzing Journal articles and the Cited Literatures." *Journal of the Korean*

-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3): 379-408.
- Park, Ja-Hyun and Min Song. 2013.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i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using Topic Model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1): 7-32.
- Park, Ji-youn and Dong-Youl Jeong. 2013. "A Study on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by Author Bibliographic Coupling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4): 31-59.
- Park, Ok-Nam. 2011. "Knowledge Structures in Knowledge Organization Research: 2000-2011." *The Journal of Korean Biblio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3): 247-267.
- Rhee, Hey-Young. 2015. "A Trend of Research Topics on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2): 153-165.
- Seo, Eun-Gyoung. 2010. "Trends Analysis on Research Articles i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7(4): 7-32.
- Shin, Hyun-Seok et al. 2013.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1974-2012."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40(4): 207-238.
- Song, Jung-Sook. 2010.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Korea: Focused on Master's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from 2001 to 2010."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4): 333-353.
- Yoo, Sarah. 2010. "A Diagnostic Analysis of Metadata R&D Statu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2): 405-426.